

Gary Yates 박사, 제12권, 세션 3, 제12권 개요, 1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열두 사도서의 개요, 1부에 대한 강의 3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들의 역할, 사명, 사역에 대한 두 세션을 살펴봄으로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열두 사도서의 소선지서에 대한 실제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이 12권의 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조금 살펴보고, 방법론과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이 책들을 연구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답해야 할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왜 우리가 열두 사도서에서 소선지서라는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책을 지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 히브리어 정경에서 히브리어 정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네비임과 케투빔의 글이 있느니라. 선지자들은 정경 후반부에 나오는데, 다시 선지서와 후기 선지자로 나누어집니다. 이전 선지자들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역사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로 언급되는 이유는 선지자들의 설교가 이 책들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왕도 아니고, 백성 자신도 아니고, 선지자들입니다. 후기 선지자들은 우리가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히브리어 정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포함됩니다.

다니엘서가 글에 기록된 것은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이 공식적으로는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선지서(Minor Prophets)는 실제로 히브리어 정경인 십이서(Book of the Twelv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2개의 다른 메시지, 1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꽤 초기 단계, 심지어 예수 시대 이전에도 그들은 이 책을 하나의 책으로 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정경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 24권이나 22권의 책에 대한 토론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세푸스는 정경에서 그 숫자를 언급합니다.

12명의 소선지서는 실제로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의 39명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12서라는 용어로 언급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소선지서라는 용어는 나중에 어거스틴에 의해 발전된 용어였으며 초대 교회에서 생겨난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들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비해 이 책들의 크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영향으로 볼 때, 이 소선지자들의 설교에서 적어도 서너 번은 그들의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미가의 설교가 히스기야를 회개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2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앓수르인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이는 놀라운 요소이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바냐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요시야의 개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요시야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동안 그곳에서 심판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선지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찮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더 작고 짧은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들의 대부분은 이 선지자들이 실제로 설교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거나 요약한 것일 뿐입니다. 아모스의 경우를 보면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5~10년 동안 설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9개의 장은 그들이 말해야 했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요약과 선집을 제공합니다.

관찰은. 우리는 십이사도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특히 소선지서에 대한 현대 연구에서는 이 책들을 하나의 책으로 읽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단위로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책들을 하나의 책, 즉 열두 사도서로 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12개의 개별 구성, 12명의 다른 선지자, 12개의 다른 시대, 메시지 및 그들의 독특한 기여로 봅니까? 그리고 대답은 우리가 둘 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 그들을 12명의 다른 선지자, 그들의 독특한 메시지, 그들의 공헌, 신학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편집자나 선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책들을 서로 엮은 방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서로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이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구성으로서의 소선지서에 대한 현대 연구 중 일부는 편집 문제를 다루게 되며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 책들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나친 강조일지도 모르지만, 이 책들은 서로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조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조금씩 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에는 유대인들이 12장을 기본적으로 통일된 구성으로 여겼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집회서 49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대선지서에 대한 언급 이후에 나옵니다. 집회서 49, 10장에는 열두 선지자의 뼈가 야곱을 위로하고 희망의 확신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으므로 그들의 무덤에서 새 생명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 12개 모두에 선지자의 이름, 구체적인 기여,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보존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의 단위로 읽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은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그냥 크기별로 조립한 걸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조립한 걸까요?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볼 때 그 배열은 연대순이면서 주제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로 연대순이지만 주제별 연결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소라 본문에 있는 이 책들의 순서는 구약 성서인 칠십인역의 그리스어 번역판에 있는 순서와 약간 다릅니다.

먼저 마소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선지서나 특정 표제, 역사적 표기, 표제를 통해 이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를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징후를 제공합니다. 그 여섯 권의 책은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 여섯 권의 책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연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는 8세기 아시리아 위기 중에 예언합니다. 스바냐는 바벨론의 위기를 다루면서 7세기, 6세기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5세기 포로기 이후의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선지자들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여섯 권의 책은 본질적으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연대순 표기가 없는 책이 여섯 권 더 있습니다. 요엘서, 오바댜서, 요나서, 나훔서, 하박국서, 말라기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여섯 권 중 마지막 네 권인 요나, 나훔, 하박국, 말라기를 보면 그 책들도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선지자들과 함께 시간 틀에 따라 소선지서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알고 있듯이 요나는 8세기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훔과 하박국은 바벨론 위기 중에 예언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증거입니다. 그들은 스바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포로 생활 이후 예언 시대 말기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그칠 것이며, 그의 사역 이후 이스라엘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는 끝에 있습니다. 결국 마소라 본문 순서의 시작 부분에 연대순에서 다소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두 권의 책인 요엘과 오바댜를 배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우리가 완전히 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조엘은 다시 한번 이 책의 연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보수적 의견은 아마도 그것이 아마도 12세기 책의 가장 초기였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서대로 두 번째 책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수 학자들 비판 학자들 요엘서는 아마도 포로기 이후의 책일 것이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호세아와 요엘이 앞쪽 근처에 있게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오바댜서에서 오바댜는 예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에돔 왕국에 관해 예언합니다. 바빌로니아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는 12서에서 8세기의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앞쪽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특히 이 두 권의 책이 주제에 대한 관심 때문에 순서와 배열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엘과 제임스 노갈스키의 책은 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12장 전체의 메시지에 대한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축복을 보내십니다.

나는 요엘서를 소선지서 앞쪽에 두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준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앗시리아 위기, 바벨론 전쟁, 포로 이후 기간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우리에게 이상을 제시합니다. 선지자가 설교하고 백성이 반응하며,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축복을 보내십니다.

만약 다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엘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비교해 보면 둘 다 주님의 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책들보다 주님의 날이 12장에서 더 지배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엘서가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책들에 대한 소개로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대순으로 볼 때 요엘의 사역은 예언 시대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오바댜서도 책의 위치에 주제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돔의 심판에 관한 책이고 오바댜서는 아모스서 다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은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돔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는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열방에 나가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외국 민족에게 예언적 사명을 띠도록 파견된 유일한 선지자인 요나서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마소라 본문에서 이 책들의 순서는 주로 연대순이지만 주제별 관심도 순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칠십인역으로 가면, 칠십인역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책인 12권의 마지막 여섯 권이 마소라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선지서 앞부분이나 12장 앞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LXX 순서는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댜, 요나입니다.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학문적 합의는 마소라 본문이 아마도 가장 먼저 나온 순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역, 아모스, 미가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대에 속하므로 호세아서 바로 뒤에 간단히 붙인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12장에 대한 여덟 개의 사본이 모두 있는데, 그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으며, 모두 마소라 본문의 순서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가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약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순서, 12권의 순서는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로 연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사역은 실제로 고전 예언 시대의 전체 범위를 포괄합니다.

그 기간은 약 300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400까지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8세기 아시리아 위기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사야가 있고, 북쪽 왕국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남쪽 왕국의 선지자인 미가와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사역, 즉 그 일부인 선지자들의 사역은 앗수르 위기 중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위기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앗수르 사람들을 대체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대의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대선지서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맡은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의 백성에게 전파하고 애굽에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마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나훔, 오바댜, 스바냐, 하박국이라는 시대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이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페르시아 시대 또는 포로 기간 이후, 즉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라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요엘과 말라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균열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국의 축복,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들은 그 기간을 다룰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400년, 즉 기원전 800년에서 400년 사이이며 고전 선지자들의 전체 기간을 다룰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모델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앗수르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55장은 바벨론의 위기를 다룬다. 이사야 56~66장, 포로 기간 이후와 백성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 우리가 12장을 볼 때 그들의 예언 사역이 그 전체 기간을 다룰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울 뿐입니다.

연대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앗수르 위기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일시적인 부흥을 이끌었지만 결국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에 심판이 임하고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러한 주제적 연관성 중 일부를 보여주는 다른 것 중 하나는 선지자들 자신이나 이 책들을 하나로 묶은 최종 편집자와 편집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을 볼 것입니다 원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흔히 표어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책의 끝과 다른 책의 시작을 연결하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한두 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때문에 소선지서들을 다루는 제임스 노갈스키와 다른 현대 학자들은 이 책들이 서로 엮어지는 방식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읽으려는 계획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표어나 링크 단어를 모두 살펴보고 추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열두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 호세아 14장 6절과 7절. 회복에 관해 말하면,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은 약속의 땅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리라 그가 레바논 나무들 같이 뿌리를 내리며 그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으리니 그 향기가 레바논 같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내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들은 곡식처럼 꽃이 피고 포도나무처럼 피어나며 그들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로다

곡식, 포도주, 포도나무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약속의 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밭이 황폐하고 땅이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마르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밭의 경작자들이여, 고래들이여,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밀과 보리를 인하여 부끄러워할지어다 밭의 소출이 없어지고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무화과나무가 시들었느니라. 그리고 다시,

우리는 포도나무, 포도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곡식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어떤 모습일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호세아의 끝 부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엘 1장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그 땅에 임하면서 사람들이 경험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의 축복과 요엘서 1장의 심판 사이에는 주제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서의 끝으로 가서 요엘과 아모스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지진이 없으나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피난처시요 이스라엘 백성의 산성이시로다.

좋습니다. 선지자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둥같은 폭풍과 같으니, 당신은 그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가볍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선지자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아모스 1장으로 갑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1장 2절의 시작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목자들의 목자들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느니라.

나는 우리가 아모스서 시작 부분인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포효하는 하나님과 천둥치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엘 3장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3장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온 땅아 너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북쪽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읽습니다. 아모스 1장 6절. 아모스가 이르되 가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가자는 블레셋의 5개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3장 4절에 언급된 동일한 도시입니다. 이제 이것의 목적은 이 선지자들을 서로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심판과 구원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서로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단순히 요엘의 끝에서 멈추고 이 일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속성을 보고 연속성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후기 편집자가 들어와서 이 책들을 바꾸거나 이 책들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본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선지자들 각각의 독특한 메시지를 연구할 때 이것이 소선지서 전체의 발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별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은 요엘서에 대한 또 다른 언급입니다. 요엘은 모든 소선지서에 대한 수많은 언급과 명백한 본문 간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주님의 날에 대해 말한 11번을 생각하는데, 그 중 10번은 12장 12절의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하천이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전에서 샘이 흘러 싹땀 골짜기에 적시리라.” 그래서 놀라운 변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산들도 액체가 흐르는 강, 물과 포도주가 흐르는 강과 같을 것입니다.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아모스의 환상을 보면 이 책에는 단 하나의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모스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 자와 포도를 밟는 자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을 것이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리니 모든 산이 그것과 함께 흐를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엘의 끝만 아모스의 시작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의 끝과 아모스의 끝, 여기서도 희망과 회복에 대한 끊임없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아모스로 가서 아모스 9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를 기업으로 얻으리라." 에돔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돔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다윗의 집이 에서의 후손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짧은 책임 오바댜서는 전적으로 에돔의 심판에만 초점을 맞춘 책임입니다.

1장 1절에 "에돔에 대하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바댜의 목사가 이같이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바댜가 연대순에서 벗어난 이유 중 하나는 에돔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모스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소문을 들었고 사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오바댜가 아니었습니다. 오바댜는 나가서 에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 1장에서 주님은 요나에게 "... 일어나 앓수르 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열방의 사자로 삼았으나 그 메시지를 성취하는 데 별로 열의가 없었으며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바댜가 이방 민족인 에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요나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 앓수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는 이 두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를 보완하고, 소선지서를 구성하는 순서와 배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나머지 소선지서들을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개별 책들 사이에는 이러한 유형의 표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책들 사이에 어떤 주제적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넘어갈 때 이 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결 중 하나는 12권이 특히 구약성서의 주요 구절과의 상호텍스트적 연결을 강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서에서 야훼에 대한 핵심 고백 중 하나이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비, 긍휼,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즉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야훼가 누구인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인 핵심 진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86편, 103편, 민수기 14장,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죄를 지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언약의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면하지 못하여 아비의 죄악을 자자에게 갚되 자자손에 이르러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천 대에 걸쳐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지키셨습니다. 비록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형벌과 징계가 있었고, 이 죄에 대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측면은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선지자들이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비판적 사상이 나중에 이 메시지들에 첨부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썬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소선지서들은 야훼에 관한 이 중심 고백을 종종 암시하거나 직접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관한 통일된 점 중 하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대한 고백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곳은 요엘서 2장입니다. 지난번 세션인데 다시 읽고 싶어요.

소선지서의 형성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이사도서 사역의 주요 부분이자 십이사도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요엘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모세가 금송아지의 여파로 하나님에 대해 배웠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앗수르의 위기, 바벨론의 위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계속되는 심판으로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서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꺼이 그들을 다시 데려가시고 이러한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분은 또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조엘은 말합니다. 나함. 그는 재난에 대한 마음을 바꿉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특성들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조엘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들의 결속 전체에 대한 일종의 프로그램적 소개인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놀랍습니다.

요나 4장 2절입니다. 괜찮은.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나요? 두려워서 그랬던 걸까? 그에게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앗시리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해 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요나 4장 2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미가에 있을 때에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당신이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시다.

내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자비와 긍휼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루시면서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언약적 성격을 지닌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니느웨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 하신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동정심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앗수르 사람들을 대할 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니느웨에도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아시리아인들이 이 메시지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암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 관해 했던 이 위대한 고백에 대한 본문 간 인용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가와 같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번복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미가가 이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가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 기업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죄악을 사하시며 죄과를 용서하시나이까? 그분께서는 인자하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다시 들리시나요? 거기에는 긍휼이 있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헤세드가 있고, 거기에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미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미가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는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긍휼, 자비, 분노의 특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아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들이 이 고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세 번이나 보았습니다. 12장에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마지막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나훔과 선지자 나훔의 책인데, 그의 이름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장, 7장에 대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것은 요나서에서처럼 적용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장, 7장의 원리를 니스웨 사람들과 앗수르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설교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니스웨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150년 후에 나훔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훔은 니스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때가 끝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갔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느니라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스웨에 이러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3절에는 여호와께서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나훔은 하나님을 폭풍으로, 니스웨를 공격할 전사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출애굽기 34장, 6장,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원칙 때문입니다. 요엘, 요나, 미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훔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34장 7절로 내려가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인을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소선지서를 통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니네베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심판과 회복의 때에 선지자들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통일된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언급은 이 두 책을 연결하는 요나와 나훔 사이의 또 다른 표어입니다.

좋아요. 괜찮은. 주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이상으로 소선지서에서 어떤 종류의 통일성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 단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이 책들을 통해 그것들을 추적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소선지서의 주요 주제와 강조점 중 하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핵심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3년에서 400년의 기간, 즉 아시리아 위기, 바벨론 위기, 페르시아 위기를 경험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회개의 사례는 제한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무너지게 됩니다. 3년에서 400년에 이르는 구약 역사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글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패시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문제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살아있는 예가 있고, 구약 정경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8장, 만일 내가 어떤 백성에게 재앙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내가 한 무리에게 선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불순종하면 나는

그 구원을 심판으로 바꾸겠다. 우리는 소선지서에서 이에 대한 살아있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무리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요나, 호세아를 보내셨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은 구원받거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인들을 북왕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미가는 남 왕국의 심판에 관해 설교합니다.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은 응답합니다.

히스기야가 듣고 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바벨론의 위기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그분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공유해야 합니다. 예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인 이곳을 복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에 응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엘과 말라기가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 그 결과 회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 기초한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패턴은 예수님 시대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추방과 더 많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 패턴이 최종적으로 정점에 이를 때 종말론적 심판과 회복으로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것,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12장 소선지서에 관한 연구인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제이슨 르큐르(Jason LeCureux)가 12장서의 주제적 통일성(The Thematic Unity of the Book of the 12)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슈브(shub)라는 단어, 회개하라는 단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어, 회복, 슈브,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고, 돌려보내고,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키는 단어라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것이 소선지서에서 사용되는 핵심 주제, 핵심 사상, 핵심 용어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 일하면서 주로 개별 메시지를 살펴보고 각 소선지서의 독특한 기여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무엇보다 더 큰 메시지, 즉 이 전체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런 종류의 펼쳐지는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좋아요. 나는 그것을 개발하고 추적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두 책 사이의 상호 연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 선지서 12장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작년에 소선지서를 공부할 때 했던 일 중 하나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중요한 장면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약속이 있잖아, 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고치시려 함이니라.

그분이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묶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를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돌아가자.

3절.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자. 그의 외출은 새벽처럼 확실하다. 그분은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장 6절. 호세아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12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나 너희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오라.

사랑과 공의를 굳게 잡고 항상 네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헤세드와 정의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특성을 나타내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14장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shub)라는 단어는 다시 명령형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음이니라. 좋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말로 받아들이십시오. 좋아요? 고백기도를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말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과 마음에 정해 두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황소와 우리 입술의 서원대로 갇으리이다 하라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고아가 당신 안에서 자비를 얻습니다.

좋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신들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우상 숭배와 거짓 신뢰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따라서 이것은 8세기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메시지만 12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12서의 서두에는 회개에 대한 이 사상이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음모와 긴장과 투쟁은 과연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다른 11권의 책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리고 호세아가 말하려는 것은 이 생각과 함께 내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의 다른 측면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4절부터 6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다.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이러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진실한 사랑 대신 사물에 대한 이러한 사랑 등 널리 퍼진 태도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호세아는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투쟁입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떠나려고 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슈브(shub)라는 단어를 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가,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그들이 잘못된 일로 돌이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부르짖어도 결코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소선지서의 긴장감은 바로 여기서

처음부터 고조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첫 장에서 끊임없이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윌리엄 홀리데이(William Holliday)는 예레미야서에서 슈브(shub)가 키워드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 1절에서 내 백성이 다이아몬드 끝이 박힌 핀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이것이 소선지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긴장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러나 바로 처음부터 우리는 이 12권의 책이 통일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 중요하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소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열두 사도서의 개요, 제1부에 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